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속도낸다

수소산업 육성포럼 성료...지역민 관심 제고

정인화 시장 "지역 미래 신산업 육성 총력"

광양시는 최근 호텔라피에서 기업체·학계·공공기관 등 수소 관련 전문가들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시민·기업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육성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광양시가 주최하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했다.

다양한 분야의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광양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120여개 좌석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정인화 시장은 개회사에서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 등이 있어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광양시에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과 관련된 수소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향후 5년을 지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수소로 대표되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 이어 정인철 순천대 교수의 사회로 '광양시 수소사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분야별 수소 전문가 주제발표

가 진행했다.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기초연설(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현대차 수소 활용 전략(임승철 현대자동차 실장) ▲포스코 그룹 수소사업 전략(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수소산업 육성 현황과 전략(김준범 울산대 교수) ▲수소 안전 및 수소소법(이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신오희 광양시 에너지관리팀장)이 수소 사업 추진 현황·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임승철 현대자동차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23년까지 약 43조원이라며 수소경제 확산 가속화를 전망하고 "광양시는 제철소가 있고 석유화학 산업이 인근에 있어 수소 생산에 대한 감점이 있다"고 광양항

탄소중립 방안으로 항만 내 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수소연료전지 전환을 제안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수소사업은 미래 기업의 명운이 걸린 만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광양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포스코는 광양시 수소산업 구축 협력 방안으로 2026년까지 COG를 활용한 부생수소를 4만까지 생산해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에 공급하고, LNG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복합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활용해 천연가스(NG)를 개질한 블루수소 연계 탄소중립 실증을 위한 광양산업단지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참석



광양시는 최근 호텔라피에서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박권필 순천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 황재필 전남도 수소산업팀장과 윤승재 여수·광양항만공사 신성장사업실장은 수소사업 추진 현황, 항만내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과 구매·연료비 보조금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광양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학계·기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오희 광양시 에너지관리팀장은 "광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시민과 학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광양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계획, 추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행사였다"며 "내년엔 좀 더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 불대산 딸기 출하. 장성군이 자랑하는 명품 과일 '불대산 딸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군은 최근 진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공선회 출하식을 갖고 딸기 판매 시작을 알렸다. <장성군 제공>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내년 1-3월 휴장

모든 입장 제한...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순천시시는 20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장한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휴장하며 휴장 기간에는 모든 입장이 제한된다.

2013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치러지며 박람회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

습지, 동천을 따라 도심까지 확장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유지를 정원화한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로 변신한 '그린 아일랜드'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지구와의 접촉, 맨발걷기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순천만 연안과 람사르습지를 연결하는 '순천만 어싱길' ▲순천만습지의 새로운 탐방동선인 '문학관 생태탐방로' ▲농경지의 새로운 변화 '경관정원' 등을 선보인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도심에 잇는 오천그린광장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화려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3정원박람회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관람객 앞에 선보이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휴장한다"며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 내년 4월, 멋진 모습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최된다. /순천=남정민 기자

담양군, 쌀 판매·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제주지역 출향인·관음사·행정기관 등 방문

담양군은 20일 "이병노 군수가 최근 제주지역 출향인, 관음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담양 쌀 판매 확대와 고향 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제주담양군향우회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를 방문해 담양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내년 시행되는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특히 제주도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향우들의 고향 쌀 애용하기와 함

께 관음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담양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은 서울시, 제주도 등 대도시 학교 공공급식에 연간 1천200여의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다"며 "담양 쌀의 안정적인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기부금 조성과 다각적인 기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 결과를 적극 공개,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이병노 군은 "담양군은 서울시, 제주도 등 대도시 학교 공공급식에 연간 1천200여의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다"며 "담양 쌀의 안정적인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 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 등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담례품을 제공한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신북항 준공 전 시범 운영

효율적 부두 이용 위한 역무선 대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내년 말 준공에 대비한 '여수신북항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역무선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시범 운영은 여수신북항 내 역무선 이용 구간인 유조선과 도선선 등이 이용할 방파제 접안 구간(780m), 통선교 급수선 등이 이용할 부잔교 3개소(560m)에서 이뤄진다.

대상 시설에 선박의 용도·크기별로 접안 구간을 지정하고, 3중 접안으로 운영하면서 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역무선 척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내 안전사고와 실제 선박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을 발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착착'

품목 제한 없는 '화순팍 포인트'로 담례품 결정

화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화순팍 포인트 쿠폰'이 선정됐다.

화순군은 20일 "최근 담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열어 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화순팍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순팍 포인트 쿠폰'을 담례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담례품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상품관리 편의성

▲배송 ▲공급업체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화순팍 포인트 쿠폰이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화순에서 생산·제조되는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감애했다.

군은 이번 담례품 선정으로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기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지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 특선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